

재해사례

(화재·폭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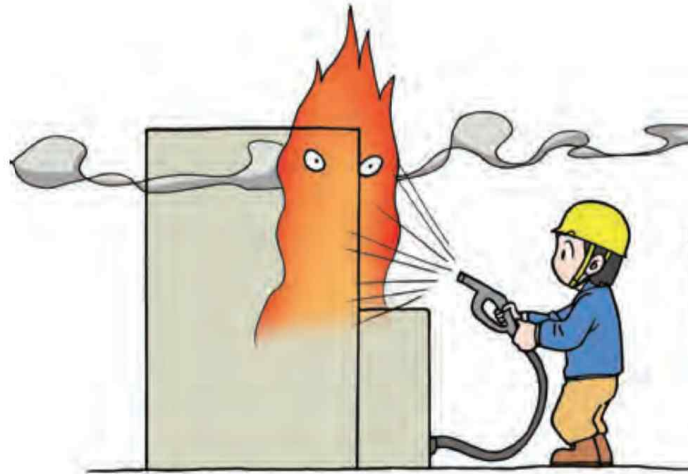
아파트 우레탄폼 작업 중 화재

2020. 12. 1(화) 군포시 소재 아파트 12층(25층 건물)에서 창호설치를 위해서 우레탄폼(발포제: LPG+DME*)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 발생으로 4명이 사망(2명 근로자)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임

*DME:디메틸에테르(Dimethyl Ether)



【휴대용 우레탄폼】



1 우레탄폼 위험성

- 휴대용 우레탄폼은 주로 부탄가스를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어 시공 중·시공 후에도 부탄가스가 발생
→ 화재·폭발 발생시 우레탄폼 자체가 가연성소재로 작용하여 대형 화재로 확산

부탄가스 발생



+ 취급시의 주의점

- 1 (환기실시) 휴대용 우레탄폼의 발포 작업 중·작업 후에는 항상 부탄가스가 발생하므로 **적절한 환기 장치가 필수** (휴대용 가스감지기 착용 권장)
- 2 (점화원 관리) 부탄가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농도에 따라서 폭발 →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**점화원 관리**는 필수

유사
사고사례

2019. 2월 인천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내에서 먼지제거용 스프레이(공기스프레이)로 차량내부 청소 후 라이터를 켜는 순간 차량폭발 → 운전자 1명 화상

※ 대부분의 휴대용 스프레이는 부탄가스를 추진제로 사용하므로

밀폐공간에서 취급 시에는 **환기·점화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**